

# 단장주교의 5월 사목 서간

5월 방한하는 에체바리아 주교의 성모성월에 대한 사목서간이다.

2014-5-10

나의 영적 자녀들이여, 예수님께서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부활시기에 걸맞은 기쁨의 분위기 속에서요 한 23세와 요한 바오로 2세의 시성

식이거행되었습니다. 무수한그리스도인들의삶에중대한의미를갖는이행사는, 우리의기억과기도안에서, 신실함과그리스도인으로서의소명을다시금상기시킵니다.

부활성야복음말씀에대한논평에서교황께서는우리주님이첫제자들을부르신것이갈릴래아였음을지적하셨습니다. 그리하여부활하신주님께서그들과만나고함께시간을보내기위해**갈릴래아로돌아가라하심**은 “제자들이처음으로부름을받은곳으로돌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황님은이어서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각자에게도 ‘갈릴래아’가있습니다. ‘갈릴래아로가라’는것은아름다운무언가를의미합니다. 그것은살아있는원천으로서세례성사를재발견하는것, 우리신앙과그리스도적경험의근원으로부터새로운기운을얻는것을의미합니다. 갈릴래아로돌아가는것은무엇보다하느님의은총이처음나를건드렸던타오르는불길로돌아가는것을의미합니다. 그불

길로부터나는오늘과또매일의불을밝힙니다. 그리고이빛과열기를나의형제자매들에게가져갑니다.”[1]

이말씀은성모님의전구로사도적열정을새로이하는성모성월을시작하는우리에게크게와닿습니다. 특히 1935년에오월순례의관습을시작한이래성호세마리아께서이달을유익하게보낼것을강조하신바도이와같습니다. 여러분들도알고또직접경험하듯이오월에는많은곳에서가톨릭신자들이성모님께꽃을바치는관행이있습니다. “우리결심의작은꽃들, 일과중에찾아모은보잘것없는제비꽃들.”[2]

이는우리의아버지의부단한가르침이었습니다. 아주일찍부터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강인한어른이지만우리의삶은 (여러분들이종종목격하듯) 산책에데려나간어린아이에비유할수있습니다. 아이들은한작은꽃을꺾어들었다가또다른꽃을집어들고또그렇게합니다. 그꽃들은작고나지

막이자라는것들이어서어른들은알아보지못합니다. 하지만아이는, 아이이기때문에, 그꽃들을보고그것을모아작은꽃다발을만들어엄마에게줍니다. 그러면엄마는사랑스러운눈길로아이를바라봅니다.”[3]

성호세마리아께서는어떤점에서도당신이모범이되기를원하지않으셨는데 단하나의예외는허락하셨습니다. “어떤점에서나를닮길원한다면내가가진 성모님에대한사랑을닮길바랍니다.”[4] 경건한마음으로의탁하는아들로서성인은어릴적배웠던기도를매일 성모님께드렸습니다. “하느님과우리의어머니이기도한그분의어머님께드리는단순하고열정적인기도. 나는여전히아침저녁으로, 어쩌다가하는것이아니라습관적으로, 부모님께배운 봉헌기도를바칩니다. ‘오저의여인, 저의어머니시여! 저는당신께제전부를 바치나이다. 자녀로서제사랑의증거로저는당신께오늘하루저의눈과귀, 혀와심장을봉헌합니다...’ 이것이어떤

식으로든 관상의 시작, 의탁하며 자신을 내맡기는 명백한 표현 아닐까요?"[5]

많은 가톨릭 가정에서처럼, 돈 알바로 역시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다운 사랑으로 성모님께의 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그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기도를 절실하게 암송하였습니다. **자애로우신 어머니, 저를 떠나지 마소서.** / 제게서 눈을 돌리지 마시고, / 저와 어디에든 함께 하시며 /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 당신께서 어머니로서 저를 보호하시어, /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저를 축복하시도록 해주옵소서. 단순해보이지만 멕시코인들이 너무도 잘아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모님은 복되신 성 삼위 앞의 전구자로서 우리를 언제나 하느님께로 이끄는 확실한 길이십니다.

그리스도인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이런 아침·밤기도를 자녀 또는 손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요! 자녀들은 오랜

시간이지나도 이기도들을 절대 잊지 못 합니다. 또한 삶의 과정에서 때때로 좌절과 우울, 영적 빈곤의 순간에 그리스도적 삶의 외적 징표가 흐릿해지고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영혼 밑바닥에 불씨처럼 만남아다시 타오르기만을 기다릴 때에도 말입니다.

돈알바로는 성호세 마리아의 가르침과 모범 덕분에 심오한 신학적 깊이를 가진 성모신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한 월례 피정 중 오후스데이로의 부르심에 대한 자신의 응답을 회상하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 피정에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하느님과 성모님을 향한 사랑에 관해서 묵상을 주셨는데, 나는 어안이벙벙해졌습니다.” [6] 그는 바로 오후스데이 입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의심 할 여지 없이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여 내려주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었고 돈알바로는 이에 즉각적이고 최종적인 결심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모든은총은지극히거룩하신마리아의  
자애로운중보, omnipotencia  
suplicante, 전능한간구를통하여우리  
에게옵니다. 따라서우리는다가오는  
수주동안그리고올해의나머지달에도  
우리어머니와의대화를더욱친밀하게  
키워나가도록해야할것입니다. 이리  
하여예수님과의일치와사도적정신이  
강화될것입니다. 이달에순례를하는  
동안이나다른날에도묵주기도의신비  
를묵상하고기도하는데더큰주의를기  
울이도록합시다. 그렇게함으로써, 돈  
알바로는말했습니다, “마리아를통하  
여끊임없이예수님께로가고또돌아가  
는습관이우리안에깊이뿌리내리게될  
것입니다.”[7]

『길』의한항목에서성호세마리아는이  
러한행동방식을권고합니다. 돈알바  
로는오푸스데이에서지낸처음시절에  
그구절의의미에대해물었습니다. 마  
리아를통하여예수께로 “가고또돌아  
가는것”. 우리창설자의대답은그의마  
리아신심을더욱더강화시켰습니다.

그자신도 자주 일화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아버지의 설명을 언급하였습니다. 성모님은 항상 하느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특히 불행히도 우리가 하느님과 멀어졌을 때에 그렇습니다. 꼭 중대한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과 중에 빠지기 쉬운 크고 작은 무성의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도 말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다가오는 수주 동안 특별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성호 세마리 아의과 달루페 성모님에 대한 구일기도를 회상하며 돈 알바로는 말했습니다. “이 오월에 우리는 무슨 꽃을 우리 어머니께 바칠 것입니까? 나는 우리의 창설자께서 항상하셨던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모님께 ‘작은 장미, 사랑과 희생의 향기로 가득찬 우리 평범한 일상의 장미’를 바쳐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의무에 더 큰 정성과 더 큰 사랑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우리를 하느님과 하느님의 사업에 일치시키는 신성한 서약에 충실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모든 영혼

들을위한거룩한관심안에서, 각자의 상태에걸맞은의무를다하면서, 까다 롭고질서있게직업적사무를수행하면서.”[8]

다른많은사람들처럼, 돈알바로는우리의아버지로부터배운성모님에대한 사랑을세심하게그의삶안에서실천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수첩이나지갑에성모상본을넣어둔다거나, 방을출입하거나성모상이나그림이있는곳을 지날때성모님께인사하고, 취침전에 신심을가지고천천히성모송을세번바치는등... 오푸스데이창설금경축을 기념하여그는 1978년에오푸스데이 안에서마리아의해를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여성사도직시작 50주년에대한 준비와감사의의미로이를 1979년과 1980년까지연장하였습니다. “우리는 평범하지않은것이나과시적인일을하지않습니다. 우리는단지, 착한자녀로서, 모든것에서모든것을위해성모님 께가는데에더욱부지런할뿐입니다.”[9]

그마리아의시기동안로마안팍의성모상을빈번히방문하면서돈알바로는교회와교황, 하느님의사업과모든영혼들을위해성모님께청하는묵주기도를바쳤습니다. 그의성모님에대한의탁은마리아의전구에대한믿음의가르침이었습니다. 나는직접목격자였기때문에여러분에게확실히말할수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와그분의어머니에대한사랑으로가득찬이착하고충실한종이보인모범은다른이들이확실한믿음을가지고복되신동정녀께의지하도록만들었습니다.

사랑은부지런합니다. 사랑은사랑하는사람이함께있도록방법을찾습니다. 이것이돈알바로가그의성모신심안에서, 오푸스데이의창설자의권고에따라한일이었습니다. 성호세마리아께서는가르치셨습니다. “일하는시간에는하느님의현존을상기시키는 ‘자명종’처럼쓸수있는인간적장치들을마련하십시오. 나는그렇게하고있고상당한효과를보고있습니다.”[10] 성인께

서는 우리에게 작은 십자고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일과 중에 때때로 그것에 입을 맞추고, 우리 책상에 주님과 성모님의 상본을 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따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을 보이는 곳에 둔 것과 같습니다. 아니, 훨씬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친구, 나의 사랑 중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11]

그의 지상여정이 끝날 때까지 돈 알바로는 성모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세심한 징표로서 그러한 “인간적 장치”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언급한 마리아의 해동안, 그는 날마다 성모 상본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일하는 곳에 두었습니다. 성모님께 애정과 열망 어린 시선을 더욱 많이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마리아의해동안, 하느님의사업의 많은신자들이그들의삶에서우리의아버지가하신권고를실천하였습니다. 돈알바로는이를열렬한신심으로행했습니다. 마리아 “암호”라고도불리는 짧은몇몇단어로된화살기도는일과중에성모님의도움으로하느님의현존을 지키도록합니다.

이수주동안, 우리는이러한깊은그리스도적신심을키우고자킬많은이유를 발견합니다. 13일의파티마성모축일은성모님의자애로운돌보심을상기시킵니다. 16일부터 24일까지는성호세마리아께서교회와교황, 오푸스데이를위하여멕시코과달루페빌라에서바치신구일기도를기억할것입니다. 24일에우리는신자들의도움이신성모님을전례적으로기념할것입니다. 그리고이달은성모님께서엘리사벳을방문하신축일로마무리됩니다. 다양한나라에서또다른많은마리아축일을지내기도합니다.

나는 새삼스레 우리의 아버지께서 성모님을 언급하신 강론과 저작을 다시 읽어 볼 것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우리의 마리아 신심을 더 젊게하고, 우리를 마리아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와 성령에 이르도록 하는 이 확실한 길을 보여 주게 될 것입니다.

“많은 회심들에 앞서,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많은 결심들에 앞서 성모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찾게 하고, 변화하게 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12]

“여러분 자신을 성모님의 자애로운 전구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많은 이들을 성모님을 위한 순례에 동참하도록 담대하게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묵주기도의 신비를 묵상하고, 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경이로운 기도를 서두르지 않고 음미하면서 바치고, 우리 어머니를 위

하여작은고행을즐겁게봉헌함으로써,  
그들은하느님의손에서나온가장완벽  
한피조물인주님의여종이하느님과모  
든이들을위하여우리에게주는전적인  
헌신을배우게될것이기때문입니  
다.”[13]

끝맺기전에, 나의지향을위하여여러  
분이기도해주기를다시금당부합니다.  
수일후 5월 10일에로마에서내가서품  
하게될성직자차단의 30명의새사제를  
위한기도에여러분이나와동참해주기  
바랍니다. 우리어머니의격려와보호  
아래, 교황님과그분을도와교회를다  
스리는이들, 주교들, 사제들, 수도자  
들, 그리고전그리스도인들을위해계  
속해서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그리  
스도의빛이사람들의머리와가슴에들  
어가기를! 우리가이기도를성모님께  
의탁한다면, 마리아께서성령강림대  
축일을위해우리자신을잘준비할수있  
도록도우실것입니다. 성모신심을자  
라게하기위해어떤결심을했습니까?

매일어떤특별한선물을성모님께바칠 것입니까?

우리의삶과하느님의사업의역사에서 성모님이가지는커다란역할을일깨워 주는이달에있는숱한다른축일들을굳 이더언급하지는않겠습니다.

나의모든사랑을담아, 여러분을축복 합니다.

2014년 5월 1일로마에서

여러분의아버지

+하비에르

---

[1] 교황 프란치스코, 부활성야 강론,  
2014. 4. 19.

[2] 성 호세마리아, 목상 기록 중 발  
췌, 1958. 3. 19.

- [3] 성 호세마리아, 「사목서간」,  
1930. 3. 24., 13항.
- [4] 성 호세마리아, 보편교회의 마리  
아의 해 시작에 즈음한 말씀, 1954. 1.
- [5]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의 벗』,  
296항.
- [6] 돈 알바로, 가족모임 기록에서 발  
췌, 1975. 10. 3.
- [7] 돈 알바로, 「사목서간」, 1985. 5.  
2.
- [8] 돈 알바로, 「사목서간」, 1984. 5.  
1. 성 호세마리아의 말씀은 1970. 5.  
20. 과달루페 빌라에서의 개인 기도  
중 발췌.
- [9] 돈 알바로, 「사목서간」, 1978. 1.  
9., 20항.
- [10] 성 호세마리아, 가족모임 기록에  
서 발췌, 1974. 3. 30.

[11] 위의 글.

[12]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49항.

[13] 돈 알바로, 「사목서간」, 1984. 5.  
1.

---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  
danjangjugyoyi-5weol-samogseogan/](https://opusdei.org/ko-kr/article/danjangjugyoyi-5weol-samogseogan/)  
(2026-1-21)